



중 백 로



밤 들 까 마 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최근 남방기원계통의 조류가 보금자리를 퍼 조류학자들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에서 관찰한데 의하면 남방기원계통의 동양구형조류인 중백로와 밤물까마귀가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 나무들에 등지를 틀고 몇년째 서식하고있으며 현재 그 마리수가 1 600마리이상으로 늘어났다.

다 같이 황새 - 왜 가리목 왜 가리과에 속하여있으면서 백로속과 밤물까마

##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남방기원계통의 조류가 보금자리를 폈다

귀속으로 분류되는 중백로 Egretta intermedia (Wagler, 1829)와 밤물까마귀 Nycticorax nycticorax (Linnaeus, 1758)는 더운 지방의 습지대에 퍼져 사는 새들이다.

일명 《검은다리백로》라고 하는 중백로는 몸길이가 58~68cm, 몸질량은 500~550g으로서 몸집은 백로류중에서 중간크기이다. 등장식 깃이 매우 길어 꼬리처럼 늘

어졌으며 몸은 흰색이고 부리와 다리, 발가락은 검은색이다. 중백로는 모양과 자태, 색깔과 우짖는 소리, 날음활동으로 수역과 들간의 자연풍치를 돋구어주며 세계적으로 그 마리수가 줄어들고있어 적극 보호되고있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밤물까마귀는 몸길이가 58~60cm이고 몸질량은 수컷이 550g, 암컷이 440g 정도이다. 목이

짧고 굵으며 뒤등수에 2개의 장식깃이 있는 밤물까마귀의 정수리와 등, 뒤목은 광택이 나는 검푸른색이며 꼬리날개는 채색이고 멧기, 이마, 뺨, 앞목, 배는 흰색이다. 부리는 누런검은색이고 다리는 노란색이다.

오랜 조류학자인 박래번은 지난 시기 남방의 더운 습지대에서 번식하던 중백로와 밤물까마귀가 금수산태양궁

전 수목원에 보금자리를 퍼고 집단번식을 시작한것은 조선조류상을 더욱 풍부히 하여주는 이채로운 현상이라고 하였다.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 연구사들은 최근년간 풍치수려한 대동강을 끼고있는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 수종이 좋은 갖가지 나무들이 우거지고 백화만발하는 원림지대가 펼쳐져 새들의 서식에 매우 유리한 생태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지구상 방방곡곡의 온갖 새들이 여기에 날아와 보금자리를 편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 효과성이 큰 새형의CT직류전기탐사기

최근 김책공업종합대학 자원탐색공학부에서 나라의 귀중한 지하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활할수 있는 첨단수준의 지하자원탐사기구를 새롭게 연구개발하여 현실에 도입하였다.

일명 CT직류전기탐사기라고 불리는 이 탐사기구는 지하 150m깊이까지의 지층의 전기비저항분포와 인공분극률분포를 영상화하여 광채형과 광상의 심부전망을 리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석탄, 유색금속, 지하수 등을 신속정확히 찾아낼수 있을뿐 아니라 건설물의 기반조사에도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땅속에 묻혀있는 광채형과 광성광물조성에 근거하여 광채의 립

체모형을 그려내는 지하탐사기술을 적극 활용할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이 방법을 도입하면 시추 및 굴진작업을 비롯한 큰 투자를 대폭 줄이면서도 탐사정확도를 과학적으로 담보할수 있고 탐사기간이 짧아진다고 한다. 이러한 지하탐사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첨단기술분야의 하나로 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자원탐색공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첨단수준의 지하자원탐사기술을 국내실정에 맞게 개발할 목표밑에 두뇌전, 기술전을 과감히 벌려나갔다.

이들은 CT탐사기술에 대한 세계적추세를 깊이 파악한데 기초하여 국소형처리소자에 의해 모든 조작을 조종, 감지

하여 결과값을 현시, 기억, 호출, 전송할수 있게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장치들을 제작하였다. 또한 공명주파수 장비를 받지 않게 하면서도 상사-수차변환기를 리용하여 측정대역을 넓히고 분해능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하여 석탄이나 광물탐사와 채굴에서 신속성과 과학성, 실리성을 담보할수 있는 새형의 CT직류전기탐사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지하자원탐사기구는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입된 대상들에서 그 경제성효과성이 뚜렷이 검증되었으며 여러단위의 지열수개발에서도 단단히 환문 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 정, 인정미 (3)

《정들면 고향》

낯선 고향에 가서도 마음을 붙이고 오래 살면서 정들게 되면 고향이나 다름바 없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정들면 미운 사람도 고아보인다.》

정이 들게 되면 누구나 다 고아보인다는 뜻으로 곁에 보이거나 밋게 보이는것이 얼굴생김새에 따르는것이 아니라 정분이 얼마나 두터운가에 의존함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정이 있어야 기쁨도 있고 락도 있다.》

서로 정이 들고 마음이 통해야 생활에서 기쁨도 즐거움도 맞출수 있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본사기자

심해야 한다.》

《알겠어요, 아버지.》

두 아들은 정로인의 말에 심중한 기색으로 대답하였다.

그때로부터 정로인네는 해마다 봄철이 오면 룡두목채를 합쳐 우물을 손질하거나 뒤집 초가여영을 다시 올린다는가 할 때면 의례히 룡두목채를 음식상에 올리곤 하였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조선봉건왕조시기 정조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한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무진에를 다 썼었다. 하지만 그 역시 당파중의 한 갈래인 노론파의 폐임에 빠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왕세자였던 장조(정조의 아버지)를 본의아니게 살뒤주에 가두어 죽게 했던것이다. 당파싸움은 궁실안에서의 내부분쟁에 그친것이 아니라 장차 이 나라의 존망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로 되었다.

정조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할아버지 영조의 뜻을 이어 《탕평책》을 나라의 시책으로 제기하였다. 그는 자

내가에서 벌어진 화전놀이에 나갔다. 꽃피는 봄철이라 울창한 송림사이로 울긋불긋 피어난 진달래꽃속에 몸을 폭 잠그고 화전을 부치며 시흥을 돋구노라니 온갖 시름이 다 가시는듯 하였다.

임금과 신하모두가 휘황이 도도해서 시흥을 돋구고있는데 왕이 수라상에 오른 새다른 음식을 가리키며 어대서 난 무엇인가고 물었다.

《상감마마, 그것은 북관 땅에 사는 정씨절을 가진 농군이 상감님께 올리고저 룡두목에 돼지고기와 미나리를 섞어만든 룡두목채인데 요즘 향간에서는 일명 <탕평채>라 부른다 하옵니다.》

《음, <탕평채>라... 그 이름이 참 마음에 드노라.》

정조왕은 자기도 몇점 접어 먹어보고 둘러앉은 관리들도 돌아가며 맛보게 하였다. 모두들 《탕평채》의 독특한 맛과 함께 그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심하였다. 정조왕은 이들을 둘러보며 말하였다.

《이제부터 이 <탕평채>를 널리 장려하며 궁중의 연회상에도 올릴지이다.》

이후부터 《탕평채》는 성안의 음식가게들에서는 물론 궁중의 연회상과 지어 임금의 수라상까지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향간의 마음씨 고운 머느리가 만든 룡두목채는 나라의 정사가 반영된 《탕평채》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끝)

## 병풍과 가정의례

옛날 우리 나라의 집들에는 병풍이 있었다. 보통병풍은 앞면에 그림을 그려거나 글자를 썼다.

아이의 돌잔치라든가, 결혼식, 생일 예순돌 같은 가정의

레때에는 큰 상의 배경으로 병풍을 세워놓았다.

그러나 상제레때에는 흰종이를 발라서 만든 병풍을 세워놓고 그것에서 의례를 치르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에로부터 우리 겨레에게는 일상생활에서 깨끗이 지키는 자기의 고유한 인사태법이 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인사법은 절이다.

조선절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허리를 굽히거나 머리를 숙여 존경과 예의를 표시하는 인사형식이다.

조선절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다.

옛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사람들은 굽어 엎드려 절을 하였는데 한나라는 위로 뺨친다고 하면서 부여와 다르다고 하였다.

이 자료에서 고구려와 부여사이에 절법이 다르다고 한것은 부여에서는 굽어엎드려 손을 바닥에 짚고 절을 하였다는데서 나온 말이다. 고구려사람들이 부여사람들과 달리 다리를 뒤로 뺨치고 절한것은 평소애 웃어른들에게 하던 절을 말하는것이 아니다.

옛 력사문헌인 《삼국지》

에는 사위가 처가집에 갔을 때 문밖에서 자기 이름을 대면서 굽어 절한다고 한것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고구려사람들도 부여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절을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군사행동이나 공적인 일로 인사할 때에는 신속히 다음동작으로 넘어갈수 있게 한다리를 꿇고 한다리는 뒤로 뺨치고 절을 하였던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옛 기록에는 백제에서 군사행동때에는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에서 인사할 때에 두손으로 땅을 짚고 부여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고 전하였다.

절하는 레법은 이와 같이 오랜 력사적기간을 거쳐 계속되며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인사레법인 조선절에는 그 방법상 많은절과 선절이 있다.

이렇듯 조선절과 같은 훌륭한 인사레법을 가지고있는것은 레절바른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본사기자

## 사화

## 탕평채의 유래 (3)

글 김복련, 그림 김윤일

이날 음식상에서 제일 인기를 끈것은 여러가지 음식재료를 섞어만든 룡두목채였다. 룡두목채는 기름진 돼지고기와 하들하들한 룡두목, 생선하면서도 향긋한 미나리의 독특한 맛이 그대로 살아나는가 하면 여러가지 음식감들이 짹짹하면서도 매운사하고 새콤하면서도 달콤하여 감칠맛이 도는 조간장에 하나로 어우러지니 그 또한 새로운 맛이였다.

돼지고기라면 심리를 뒤킨 만이도 룡두목에 섞여있는 돼지고기는 나무라지 않고 접어갔고 룡두목은 슬슬해서 먹을 맛이 없다면 들깨도 국수오리처럼 가늘고 하르르한 룡두목채만은 누가 볼새가 재는 감추듯 했다. 벌써 여러날째 속이 트직해서 밥상을 멀리하던 만이는 룡두목채를 먹으니 목은 체기까지 쑥 내려갔는지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아들들의 그 모양을 호호하게 바라보며 정로인은 저가락을 늦대접에 가져갔다.

《거참, 룡두목이 돼지고기와 이렇게 잘 어울릴줄은 정말 몰랐는데...》

정로인은 감동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머느리를 찾았다. 남정네들이 식사하

는 사이 누렁이를 다 먹이고 난 쌍가매가 산아래 샴터에 내려가 샴불 한통이를 길어가지고 돌아왔다. 쌍가매는 물사발을 정리 두손에 받쳐 들고 시아버지에게 드렸다. 정로인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머느리에게 말하였다.

《오늘 점심참은 정말 별맛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별식을 만들 생각을 다했느냐?》

그러자 쌍가매는 두볼에 홍조를 띄우고 나직이 대답하였다.

《사실은... 식성이 각각인 집안식구들의 구미에 맞을 그런 식찬을 만들수는 없을가 하고 생각하던 나머지 한번 만들어본것이옵니다.》

《그래?! 너의 지극한 정성이 이렇듯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내게 했구나. 참 용라.》

이때 탁배기 한사발에 온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들깨가 싱글뽕글 웃으며 말했다.

《이런 룡두목채라면 난 돼지고기를 제쳐놓고 먹었어 요. 안 그래요, 형님?》

들깨의 물음에 만이가 열려진 입을 다물지 못하며 맛장기를 쳤다.

《나두 룡두목채에 들어간 돼지고기라면 사양하지 않을

란다.》

《하하하.》

《허허허.》

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귀전에 들으며 쌍가매는 두볼에 상국이 미소를 지었다.

《확실히 음식맛을 돋구는 손은 따로 있는가봐요. 형수님이 만든 음식은 뭐든지 다 맛있거든요.》

음식그릇을 주섬주섬 거두는 쌍가매를 바라보며 들깨가 하는 말이였다. 그 말에 정로인이 머리를 저었다.

《그렇게 아니다. 그건 네 형수가 집안사람들을 위한 정성이 하두 지극하니 음식맛두 절로 나는거란다. 무슨 일이는 마음먹기탓이라는 말도 있는것처럼 음식맛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지만 또한 먹는 사람에게도 달려있거란다.》

《아버지, 그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음식맛이 먹는 사람에게 달린다니?!...》

처음 듣는 소리라는듯 만이도 의혹을 감추지 못했다.

《아무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그것만 주장한다든가, 또 한가지 음식만 편식을 하게 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거니와 집안의 화목에도 지장을 주게 되는 법이니라. 너희들은 이걸 꼭 명



양의 청계천을 경계로 동서로 갈라지기 시작한 당파싸움은 세월을 넘어 정조왕대에까지 지속되었다. 당파싸움의 세파속에 정조왕의 부친도 28살 꽃나이에 비명횡사당하였다.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왕은 당파의 폐풍을 없애기 위해 《탕평정책》을

기방을 《탕평정실》이라 이름짓고 나라의 권력이 어느 한 파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극력 통제하였다. 그러나 그의 의도대로 당파싸움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다. 어느해 봄 삼월삼짇날이였다. 정조왕은 아픈 머리로 쉬을겸 성밖의 경치좋은 시